

치 사

수확과 나눔이라는 뜻 깊은 절기에 대덕과 혜덕 법계를 품수받는 스님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더불어 발심출가한 뒤 20여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원력으로 오늘에 이른 스님들의 정진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법계품서식이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신 법계위원 스님들과 도움을 주신 조계사 소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덕 혜덕스님 여러분!

‘처음에 올바르게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는 화엄경의 말씀처럼 20여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속에 느꼈던 감동, 그 열렬하고 생생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출가할 당시의 서원을 잃지 않고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단과 종도의 중추입니다. 그동안 선대의 덕화에 의지해 왔다면, 이제는 그간의 정진을 점검하고 부족함은 채워야 하며, 성취는 나누어야 합니다. 지혜를 가꾸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웃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이고도 종교적인 책무와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교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종단적으로도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하는 것은 물론 참신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 모두 처음에 다졌던 마음 그대로 사회와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을 이루는 것은, 저마다의 서원을 현시대에 실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한국불교를 새롭게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수행과 정진, 그리고 전법교화의 중심이 되어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시길 바랍니다. 종단은 여러분의 수행과 교화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대덕·혜덕 범계품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